

이치대첩기념제 이모저모



축사를 하고 있는 문정우 금산군수. 이치대첩 기념제는 임진왜란 육지 최초 승전 기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10월에 금산인삼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32사단 국군장병들이 총장공 권율도원수와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헌화 및 분향이 시작되기 이전에 총장사 바로 옆에서 10발의 조총을 발사하고 있다. 이치대첩기념제가 봉행된 이후 조총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치 426년 전 권율장군과 용감한 조선의 용사들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한 후 일본군을 무찌르고 대둔산이 떠날 날 같이 외치는 함성소리처럼 들리는 듯하다.



축사를 하고 있는 권건중 사무총장. 범국민적인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행주대첩기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자고 열변을 토했다. 권율장군의 최초 승전의 터인 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총장사에 퍼령퍼령하게 울려 퍼지는 32사단 군악대의 연주 모습



기념제에 참석한 문정우 금산군수 등 군관민 주요 내빈들



주목주목 비가 오는 가운데 뮤지컬 외 금산성이 공연되고 있다. 권율장군이 이치고개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백성들과 승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뮤지컬로 재현하고 있다.



사회자 김성일 이치대첩기념제추진위원회 위원(진산신협 전무), 우산 쓰고 진행.



이치대첩기념제에 참가한 이웃 주민과 학생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행사 도중 비가 내리자 우비를 입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



헌화하고 있는 권동원 상무이사(참의공중중)와 권경관 금산지역총친회장(왼쪽 뒤)



권영범 총장공중중 회장과 권박원 참의공중중 이사가 기념제에 대한 감회와 기념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치대첩제에 참가한 축진들이 이치대첩기념제가 끝난 후 총장사 인근 식당에서 이치대첩기념제와 일제 강점기 때 없었던 원래 이치대첩기념제의 몸통을 찾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대전호뿌리 문화 축제에 참가하는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많은 축진들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대총회 권건중 사무총장, 권영범 총장공중중 회장, 권용기 대전지역총친회장, 권호준 전 이사장, 권박원 이사장, 권동원 상무이사, 권정순 총무(이상 참의공중중), 권영환 편집국장, 권영규 총무부장, 권태훈 업무부장(이상 대총회), 전국청장년협의회 권순용 사무국장, 권기성 서울청장년회 기획실장 등만 참석했다. 점심은 권영범 총장공중중 회장이 마련했다.

이치대첩 승전과 정충신

이치대첩의 승리는 왜군의 호남 진출을 봉쇄하고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던 육지에서 조선 최초의 승전이었다. 이 승전 소식을 임금인 선조에게 빨리 알려야만 했다.

권율장군은 대첩을 거둔 뒤 곧바로 조정에 알릴 임무를 수행할 병사를 찾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때 내가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있었으니 정충신이었다. 그는 16살이었다. 공문(장계)을 받은 정충신은 사흘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다.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물으니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떠나지 못했으나 이제 폐를 얻었으니 곧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폐리는 게 공문을 짚신으로 만들어 왜군의 감시를 피하는 전략이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단신으로 왜군 진영을 돌파하여 선조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지략이 뛰어났던 정충신은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선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이항복은 그를 아들같이 아꼈다. 난을 일으켰던 이괄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그러나 이괄의 군사를 무찔러 금남군에 봉해졌다. 병자호란 바로 직전에 죽었다.

정충신의 고향은 광주광역시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중심도로를 금남로라 이름 지어 그를 기리고 있다.

유장(儒將) 권율

선조실록(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30일)에는 권율도원수에 대해 평가하는 대목이 나온다. “도원수 권율(權輿)이 사람됨이 침착 진중하고 도량(度量)이 넓으며 용모에 위엄이 있었다.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 관인(寬仁)하니 사졸(士卒)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였다. 독왕 산성(秀王山城)을 진수(鎭守)하자 경기(京畿) 백성들이 기대를 모았고 행주(幸州)의 대첩(大捷)으로 중국까지 이름이 났으니 옛날 유장(儒將)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 중에 유장(儒將)이라는 단어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장은 유(儒)와 장(將)이 합한 단어이며, 문(文)과 무(武)가 융합된 개념이다. 권율도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유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는가. 안동권문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연려실기술은 안동권문의 전체 역사 속에서 권율도원수를 자리매김한다. 시조 태사공부터 시작해서 양촌 권근(16세)과 영의정을 역임했던 아버지 권철을 닮았다는 것이다. “공은 조정에 우뚝 서서 일을 만나면 우레처럼 움직여 출입하고 변통함에 막힘이 없으면서도 바른 길을 잃지 않는 권태사(太師)의 유풍

과, 바라보면 의젓하고 가까이 가면 따사로운 친화로서 사람을 대해 충심으로 심복하게 만드는 권양촌의 미행과, 높고 큰 띠로 풍채와 용의(容儀)를 의젓이 바로 가지며 일에 당해서는 곧고 깨끗하나 질박해 까다롭지 않은 그의 아버지인 영의정 권철의 국량이 있었다. 공은 이 세 가지를 겸해 가졌으며 공훈과 총렬은 이 세 사람보다 더했다.”

권율도원수는 변통함에 막힘이 없고 바른 길을 잃지 않는 “병기달권(炳幾達權)”의 지략을 발휘한 시조 태사공의 전략적 권도를 습득하고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왕권과 후백제 권력이 싸우던 병산전투에서 전쟁 상황의 작은 기미를 정확하게 읽고 왕건으로 하여금 권도를 발휘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게 했던 시조 태사공을 닮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권율도원수의 6대조인 양촌 권근의 친화력을 닮아 부하들이 충심으로 심복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결을 더 나아가 양촌의 학문적인 재능까지도 닮았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권율이 사람들에게 의분을 일으켜 총괄기하하도록 작성한 문장력은 그 재능이 양촌의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의미에 틀림없다.

여기에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권철의 곧고 깨끗하나 까다롭지 않은 국량까지 더해져서 권율도원수가 역사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안동권문의 권도는 국가 위기 때마다 시대를 저울질했다고 볼 수 있다. 후삼국 시대에는 시조 태사공의 전략적 권도로, 고려말과 조선 초기 양촌 권근은 창엽과 수성의 갈림길에서 사상적 권도로 수성의 길을 열려 준 대사가였다. 조선의 기틀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기를 다스리는 데 꼭 필요한 사상의 두 축을 제시했다. 태조대에 간신으로 평가받던 포은 정몽주를 절의의 축으로 세우기를 건의 했고, 목화로 백성들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한 문익점을 배향하고 그 자식들을 중용할 것과 화약을 이용하여 왜구를 무찌른 최무선을 배향하고 그 자식들 역시 중용되도록 태종에게 요청하여 국가경역에 꼭 필요한 실용의 축도 제시했다는 점이 그렇다.

시조 태사공의 전략적 권도와 양촌 권근의 사상적 권도 여기에 아버지 권철의 국량까지 닮아서 역사적인 권율도원수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권율은 유장이자 권도의 상징이며 안동권문의 역사적 산물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www.semyung.ac.kr

대학원의 참대학 시명대!

학생경험중심교육을 세상에 포괄하다

ARM

ALH

학생경험중심 NO.1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 안내 민송CEO 과정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은 지난 1996년 8월 제1기 고위관리자과정 모집을 시작으로 2006년 8월 10기 수료까지 총 443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였으며, 다변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신규과정으로 민송CEO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민송CEO과정은 보고 설림자이신 故 朴 權영우 박사님의 교육이념을 발원하여 지역사회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최고 경영자 및 고위행정관리자를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본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8년 3월 현재 제12기 과정에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우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